



한국영화를 듣는다

심혜경

한국영상자료원 객원연구원

필름 원판까지 분실된 영화사료들

최근 한국영화사 연구에서 객관적이고 선형적인 역사 서술에 대한 비판적인 인식이 높아지면서 구술사에 대한 관심이 점점 커지고 있다. 영화는 여타 대중문화 장르보다도 가장 가까이 대중의 피부에 닿아 있었지만(혹은 있었기 때문에), 영화가 학문 분과에 진입한 것은 1970년대 이후이다. 게다가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으로 그리고 활발하게 영화학 연구가 진행된 것은 1980년대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한국영화’라는 사건과 그 역사를 들여다보기 위해 연구자가 흔히 동원하는 문헌자료들은 신문이나 잡지에 실린 단편적인 영화 평론, 당대의 유명 영화배우 혹은 감독과의 인터뷰, 정책적인 변화 등인데, 남아 있는 정보가 지극히 제한적이다. 특히 한국전쟁 이전의 초창기 한국영화사를 연구하는 연구자들에게는 더욱 그러하다. 여기에 가장 안타까운 일은 수많은 극영화와 기타 영상자료들이 현재 남아 있지 않다는 점이다. 아카이빙의 중요성을

놓치고 있던 지난날, 영화제작 및 배급업자들은 한국영화를 해외로 판매하는 과정에서 필름 원판까지도 수출해버리는 우를 범했고,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사라진 군소 영화제작사들은 필름 원판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은을 추출해내거나 밀짚모자를 만드는 재료로 고물장수에게 판매해버리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영화 연구자들이 구술사에 눈과 귀를 모으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초창기 한국영화를 담당했던 1세대 영화인들의 구술을 들을 수는 없지만, 이 땅의 영화의 역사가 짧은 만큼 일부 2세대와 3세대 영화 인력들은 생존해 있다. 문헌자료가 포착할 수 없는 영화사의 빈틈과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사실의 발굴과 문헌의 오류 수정을 위해서, 그리고 다른 관점의 영화사 쓰기의 시작으로 한국영화 구술사는 진행 중이다.

필자는 2005년부터 한국영상자료원의 ‘원로 영화인 구술채록 사업’에 참여하였다. 올해는 한국 최초 극장용 장편 애니메이션 <홍길동>(1967)을 연출한 신동헌 감독님과 1950년대 후반부터 400여 편의 영화에서 편집을 담당한 이경자 선생님과 구술채록을 마쳤고, 그간 10인(감독 김기덕, 평론가 임영, 시나리오 작가 신봉승, 배우 양일민, 특수효과 이문걸, 의상 이해운, 편집 김영희, 녹음 이재웅)의 구술자를 만나왔다. 이 글에서는 한국영화사 기술에서 구술사 방법론을 적용한 사례들을 짚어본 후, 한국영상자료원의 원로 영화인 구술채록 사업에 대해 살피려한다.

구술사, 다른 한국영화사

그동안 영화사는 대개 감독이나 배우를 중심으로 하는 작가주의적인 비평 전통과, 민족주의적인 리얼리즘을 중심으로 하는 방법론으로 기술되어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다른 시각과 인식을 바탕으로 영화사를 기술하려는 시도가 등장했는데, 이는 구술사로 수렴, 시작된다. 가령 대중 유희로서의 영화 수용 양태에 관한 연구라든지, 영화제작사를 중심으로 한 영화사 서술이라든지, 한국영화 기술사나 한국영화 장르사라든지, 영화제작인력 소사나 여성 영화인 역사라든지, 다른 대중문화와 대중미디어와 영화와의 관계 등에 관한 역사적 관점에서 구술증언이 중요한 시발점이 될 수 있다. 이같이 새로운 관점으로 한국영화를 조망하는 일련의 움직임들이 서서히 일어나기 시작했다.

■ 원로 영화인들의 인터뷰

〈소품으로 본 한국영화사 - 근대의 풍경〉(차순하 외, 소도, 2001), 〈여성영화인 사전〉(주진숙 외, 소도, 2001), 〈한국영화기술사〉(김미현 외, 영화진흥위원회, 2002), 〈한국영화 기술의 역사 1980~2008〉(권상준 외, 커뮤니케이션북스, 2008)의 작업들은 영화 소품, 여성 영화인, 영화기술을 중심으로 한국영화사를 기술하는 데 문헌자료만으로는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원로 영화인들을 인터뷰한 연구물들이다. 즉, 문헌사를 보완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구술 인터뷰가 진행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진행 방식은 주로 인터뷰 대상자에게 주제와 관련한 특정한 부분에 대해 질문하는 식이었고, 결과물의 처리에 있어서도 인터뷰의 ‘일부’를 발췌하거나 연구자의 서술을 위한 ‘보조’ 자료로 사용했고, 책의 말미에 부록으로 수록한 녹취문도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가독성을 고려하여 정리했다.

■ 영화사가 이영일과 초창기 영화인들의 대담

영화사가 이영일이 한국영화사 초창기에 활동했던 영화인들과 대담을 진행한 것을 후학들이 펴낸 〈한국예술아카이브총서 03: 이영일의 한국영화사를 위한 증언록 - 이경순·유장산·이필우·이창근〉, 〈한국예술아카이브총서 04: 이영일의 한국영화사를 위한 증언록 - 김성춘·복혜숙·이구영〉, 〈한국예술아카이브총서 05: 이영일의 한국영화사를 위한 증언록 - 성동호·이규환·최금동〉(한국예술연구소 편, 도서출판 소도, 2003)이 있다. 대담자의 구술 증언을 가능한 있는 그대로, 사투리나 비문까지도 그대로 수록했고, 용어 풀이나 이해를 돕기 위한 추가 정보 등에 대해서는 편집자가 주석으로 처리하였다. 초창기 한국영화에 대한 문헌자료를 찾아보기 힘든 가운데 당시 활동했던 영화인들의 증언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생생하게 접할 수 있는 소중한 자료이다. 다만, 1960년대 후반에 진행된 대담이라 일부 녹취 음성이 잘 저장되지 않아 녹취록의 가청도가 떨어진다는 아쉬움이 있고, 면담자인 이영일이 구술채록에 관여하지 못하고 그의 사후에 후학들이 진행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한국 근현대예술사 구술채록 사업’

2003년부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진행한 예술사 구술채록 사업이 있다.

공연예술 분야의 구술자로는 변사 신출(면담자 조혜정), 감독 유현목(면담자 조혜정), 감독 이형표(면담자 이순진), 배우 황정순(면담자 이순진), 배우 최은희(면담자 이용관)가 있다. 구술 대상의 '생애사'에 집중하고 있으며, 구술 대상별로 각각 자료집을 만들어 아르크예술정보관에 소장하고, 구술 대상자가 공개를 원하지 않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녹취문을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다. 녹취문에는 면담자의 본문 주석 작업, 생애·작품연보, 구술채록 후기 등이 실려 있다.

한국영상자료원의 '원로 영화인 구술채록 사업'

한국영상자료원은 2004년부터 '원로 영화인 구술채록 사업'을 시작하여, 새로운 사료의 발굴과 정리에 중점을 두어왔다. 2007년까지 4년간 총 52인의 원로 영화인 구술채록을 진행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영화사 구술총서: 한국영화를 말한다>라는 단행본 시리즈를 매해 1권씩 총 4권을 출간하였다. 이 단행본들은 구술자와 면담자의 전문성이 빛난다는 점에서 비교적 좋은 평가를 받았다. 일부 작가와 특정 작품들을 옹호하고 있는 기존의 영화사 서술방법론에서나 신문이나 잡지 등의 문헌자료를 통해서만 알 수 없는 많은 사건과 정보들이 이 구술채록을 통해 발굴, 정리되었다. 시리즈 각 권의 면면을 살펴보자면 다음과 같다.

■ 한국영화사 구술총서 01 <한국영화를 말한다 - 1950년대 한국영화>

'1950년대 한국영화'를 중심으로 한국영화 현장과 영화 문화에 대해 3인의 면담자가 원로 영화인 총 22인을 대상으로 60회(각 3회)의 구술채록 작업을 진행하였다. 이 작업에서는 한국전쟁을 어떻게 겪어냈는지와 민·관·군에서 어떻게 영화작업을 진행해갔는지에 대한 1950년대의 시대사적인 특성과, 전쟁 후 황폐해진 서울 충무로가 어떻게 영화산업의 메카로 태동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것을 중심으로 한 '주제' 중심적 경향이 강했다고 할 수 있다. 게다가 22인의 증언을 '1950년대'라는 주제 아래 인물별로 장을 구성한 단행본의 형태로 선보이려다 보니, 구술채록문을 재구성하고 윤문하는 작업이 동원되었다.

■ 한국영화사 구술총서 02, 03 <한국영화를 말한다 - 한국영화의 르네상스 1, 2>

2005년, 2006년 구술총서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서서히 르네상스에 접어들기 시작한 한국영화계의 1960년대 중반까지를 집중 조명했다. 2004년 첫번째 구술채록에서의 시행착오를 보완하여 두번째와 세번째 구술채록에서는 각각 4인과 3인의 면담자가 10인의 구술자를 전담하여 4회의 구술채록을 진행하였고, 기존의 영화사에서 주요하게 평가받는 인물들뿐 아니라 영화 기술과 영화 후반 작업 분야로 영역을 넓혀 구술 대상을 선정하였다. 두번째 작업까지는 여전히 시대사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구성하고 첨삭하였지만, 세번째 성과물에서는 이러한 접근방식에 대한 문제의식을 느끼고 생애사적인 측면을 보다 강화하여 구술채록을 진행하였고, 이전 출간물보다 운문을 줄였다.

■ 한국영화사 구술총서 04 <한국영화를 말한다 - 한국영화의 르네상스 3>

네번째 구술총서에서는 기획, 극장 등으로까지 영역을 넓혀 구술 대상을 선정하여 영화계 이면의 보다 다양한 이야기들을 채록하였고, 면담자 5인이 각각 구술 대상 2인씩을 전담하여 총 10인의 구술을 채록하였다. 구술생애사에 대한 인식을 더 강화한 면담자들은 각 인물별로 면담자의 해제, 상세목차, 키워드, 색인 등을 보완하여 한국영화사 연구서로서 구술총서의 가치를 높였다. 이전의 구술총서에서 나타난 한계, 즉 전체 구술을 한 권으로 묶기 위해 첨삭, 운문, 재구성의 과정을 거치는 것이 구술채록 전문의 자료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네번째 구술채록 사업에서는 두 가지 형태로 구술채록문을 만들었다. 하나는 이전의 구술총서 시리즈처럼 재구성하고 첨삭을 가한 단행본 한 권으로 출판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구술자당 연구 자료집 한 권의 형태로 총 10권으로 만들어, 구술자의 생생한 증언 원문을 그대로 싣고 면담자가 해제와 주석을 작성해 구술채록문을 의미화하는 방식으로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이다. 이 자료집은 출판하지 않고 한국영상자료원 내의 자료실에 비치하여 관심 있는 영화애호가나 연구자들을 위해서만 공개하였다.

올해 2008년 한국영상자료원의 원로 영화인 구술채록 사업은 생애사와 사건사로 나뉘어 진행하고 있다. 생애사 구술채록은 첨삭, 운문, 재구성이 필요한 구술총서 단행본 출판을 하지 않고 전문을 한국영상자료원 내에서 한국영화 연구자 및 일반 영화애호가들에게 공개하는 방식으로 6인의 구술채록을 진행

하고 있고, 새롭게 시작된 사건사는 영화제작사 ‘신필름’에 관해 구술채록을 진행하고 있다.

■ 그동안의 시행착오와 성과

한국영상자료원의 원로 영화인 구술채록은 매해가 새로운 작업이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기존의 한국영화사 서술방법론에 대한 문제의식과 구술사 방법론의 필요성이 생겨나고 일부 영화사 기술에서 구술채록이 보조적인 방식으로 사용되고 있긴 했지만, 구술사에 대한 경험적, 이론적 논의가 활발하지 않은 시점에서 시작한 원로 영화인 구술채록은 매해 시행착오를 거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해가 거듭할수록 사업의 방식과 진행과정이 다각도로 개선되는 나름의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우선, 구술채록의 결과물을 단행본 형태로 출판하던 것의 장·단점이 보완되었다. 단행본 출판은 영화애호가들과 연구자들에게 접근성이 좋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술자들이 본인의 구술이 단행본 형태의 연구물로 출간된다는 데 대한 자부심을 가질 수 있기도 하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 이러한 결과물은 일반 독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해 가감, 운문, 재구성의 과정이 포함되어 원본 채록문의 영화사료적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해 출판용과 한국영상자료원 자료실 비치용, 두 가지 형태로 만들었다.

둘째로, ‘1950년대 한국영화’ 혹은 ‘한국영화의 르네상스’ 등 시대를 중심으로 한 초반의 구술채록 방식이 보완되었다. 구술채록을 진행하면서 연구자들은 점점 구술채록에 있어서 생애사의 중요성을 절감하게 되었다. 실제로 구술대상을 면담하게 되면 특정시기에 집중하는 것이 더 힘든 작업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또 특정시기의 영화적 사건이나 구술자의 활동 경력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과 이후의 인간관계, 영화 작업이나 기타 활동의 맥락을 이해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구술자의 가족관계나 인성 등에 대한 정보가 제공되고 이에 따른 이해가 있어야만 한다. 게다가 면담자가 특정시기에 관한 질문에 집중하다라도 구술자를 통해 보다 흥미롭고 사료적인 가치를 가지는 다른 시기의 사건이나 사실을 접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기 마련이다. 그래서 2006년부터는 생애사에 더 집중하여 면담이 진행되었다.

■ 한국영상자료원의 원로 영화인 구술채록 사업 구술 대상자 명단

분야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진행중)
감독	박상호, 노진섭, 하한수	김기덕, 이강원	안현철, 양종해	심우섭	신동현, 정소영, 정창화
배우	임해림, 이택균, 최지희	이민, 윤인자, 이경희	양일민	전계현, 김혜정	구봉서
기획	황남, 김인기			최진	
시나리오	김지현, 최석규	한우정	신봉승		
촬영	홍동혁	전조명, 서정민		유재형	전광석
조명	김석진, 마용천	박창호	함완섭	박진수	
편집	김희수, 이도원			김영희	이경자
미술	노인택		송백규	조경환	
녹음	손인호			이재웅	
효과	최형래(음향효과)		이문걸(특수효과)		
음악	전정근				
성우	이혜경				
평론	호현찬	임영			
저널	강대선				
소품			이태우		
의상			이해윤		
분장			송일근		
극장				전경섭	

한국영상자료원의 원로 영화인 구술채록 사업은 해가 거듭될수록 장점을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하면서 52인의 원로 영화인의 생생한 증언이 진행되었다. 그간 탐색이 불가능했던 다양한 영화 사료들이 축적되는 것은 물론이고, 구술 채록을 계기로 원로 영화인들의 사진·시나리오·잡지·서적 등등의 소장 자료를 기증받기도 한다. 게다가 원로 영화인들의 구술채록은 이듬해 구술자 선정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소식이 묘연하던 영화인들의 소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지, 다음 구술자로 특정 인물을 추천한다는지, 심지어는 섭외에 난항을 겪던 구술자를 회유하여 구술채록을 받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주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매년 면담자들의 채록 경험이 점점 쌓여간다는 점이 큰 성과이

다. 사업을 처음 진행할 때에는, 구술자와 면담자의 관계에서 면담자를 어떤 위치에 설정할 것인가, 구술채록 연구 성과물에 있어서 면담자가 어떤 역할을 하며, 어느 정도까지 책임 소재를 가지는가에 대한 인식이 부족했다. 그러나 해가 거듭될수록 동일한 구술자라도 면담자의 전문 지식과 면담 능력에 따라, 구술자와 면담자 간의 라포(rapport) 형성의 정도에 따라, 그리고 둘 사이에 얼마나 역동적인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느냐에 따라 구술채록 성과물이 달라진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다양한 구술자와의 채록을 경험하면서 면담자의 역할과 책임의 중요성을 자각하게 된 것이다. 4인 혹은 5인의 면담자가 구술세미나와 구술채록을 동시에 진행하면서 서로의 면담 경험, 노하우, 그리고 면담을 통해 알게 된 영화사적 자료들을 공유하는데, 이를 통해 면담자들은 영화사 구술채록에 대한 전문성을 갖게 되었다. 동일한 사건이나 인물, 역사적 사실에 대해서도 구술자마다 각각의 경험, 기억과 관점에서 다르게 구술하는데, 이를 토대로 면담자들은 동일한 사건에 대한 상이한 구술을 해석할 기준을 설정하기도 한다. 또한 채록 경험이 쌓이면서 면담자들마다 특정 전문 분야가 생겨나기도 한다. 촬영이나 조명 등 현장기술 분과에 대한 전문 면담가, 특수효과, 녹음, 편집 등에 대한 전문 면담가, 배우나 감독에 대한 전문 면담가, 극장, 배급, 기획에 대한 전문 면담가 등이 그것이다.

■ 영화 구술사 작업만의 특성

연구자로서 매해 원로 영화인 구술채록을 진행하면서 새롭새롭 느끼게 되는 영화인 구술사 작업만의 특성들이 있다.

우선, 영화라는 매체는 예술이자 대중문화로서, 문학, 연극, 악극, 라디오, 방송 드라마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음악, 미술, 건축, 기계 등 다른 장르와 교직되어 있다. 게다가 한국영화는 한국 근대사의 격변기인 1970년대까지 민·관·군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발전했다. 때문에 면담자에게는 영화사적 전문 지식뿐만 아니라, 타 장르와의 관계성, 문화사, 미디어 간의 콘텐츠와 인력의 호환성, 정치·경제·사회적 역사에 관한 풍부한 배경지식이 전방위적으로 요구된다. 여기에 영화 제작이 분과마다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한 집단 작업이기 때문에 연출, 배우, 촬영, 기획, 시나리오, 제작, 편집, 녹음, 의상, 소품, 분장, 효과 등 각 분과에 따라 면담자에게 요구되는 배경지식의 범위가 달라지기 마련이다.

실례로 한 배우의 경우에는 영화뿐만 아니라 악극단과 군예대, 라디오 방송극과 텔레비전 드라마를 넘나들어 활동하였기 때문에 이 모든 사항이 면담자가 철저히 조사하고 연구해야 할 범위였다. 또 녹음 기사를 면담할 때는 한국의 영화제작 역사, 특히 후반작업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뿐만 아니라 한국영화에 대한 영화사적 지식, 더불어 한국 영화기술의 발전 과정에 대한 지식, 관·군의 홍보기구에 대한 사전조사 등이 필수적이었다.

영화사적으로 주요하게 평가받았던 인물이나 감독, 배우, 그리고 촬영 분과의 경우, 상대적으로 문헌자료들이 존재하는 편이고, 일부 인물은 출연한 영화와 문헌자료가 너무 많아 면담자가 해당 정보를 취사선택하는 것조차 힘들 수 있다. 또 미디어에 지속적으로 노출된 구술 대상자, 특히 미디어의 효과와 기록의 의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일부 감독이나 배우들을 면담하면서 녹음·촬영 한다는 것은 면담자에게 강도 높은 작업이 아닐 수 없다. 이들 중에는 이미 특정한 자기 서사가 준비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면담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또한 문헌자료가 지나치게 많을 경우 자료들 간의 불일치를 확인하기 위한 질문, 혹은 간극을 메우거나 균열을 가할 수 있는 질문들이 면담자에게 요구되는데, 바로 이 지점에서 면담자의 역량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수많은 영화에서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영화사의 뒤편 길에만 존재했던 인물들이 있다. 이들의 경우에는 한국영화사적으로 거의 주목받지 못한 인물들이라 거의 존재하지 않는 문헌자료를 토대로 그들의 구술 설계도를 작성하는 것 자체도 힘든 과정이다. 또 일부 스태프들은 본인의 작업과 중요성에 대해 스스로 폄하하거나 구술채록의 중요성에 대해서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많아, 면담 자체를 거절하기도 한다. 이럴 경우에는 면담자가 구술자의 작업에 대해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가치 평가를 적절히 수행할 필요가 있다.

여성 영화인들이 기억하고 말하는 한국영화계는 어떤 모습일까

배우를 제외하고는 한국영화 제작 현장에서 스태프로 여성이 관여하는 부분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1980년대까지도 여성 영화감독은 박남옥, 홍은원, 최은희, 이미레 단 네 명뿐이고, 여성이 영화계에서 담당한 분야는 주로 배우, 연출부, 시나리오, 스크립터, 의상과 편집뿐이었다. 워낙에 과거에는 공적인 영역에

서 여성의 활동이 많지 않았고, 얼마 안 되는 여성 전문인의 경우에도 역사적 자취를 찾기가 힘들었다. 마찬가지로, 영화계에서도 여성 전문 인력이 활발하게 활동한 공적인 기록을 찾기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 전문 스태프를 기록하는 일이 그 자체만으로도 중요해진다. 남성적인 영화제작 현장에서 과연 여성 영화인들은 전문 스태프로써 어떻게 살아냈으며, 이 치열한 영화 현장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을까. 여기에 필자가 구술채록을 진행하면서 반복적으로 느낀 것은 젠더에 따라 구술자의 구술 방식이 차이를 보인다는 점이다. 필자가 새롭게 흥미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바로 이런 발견에서 출발하는데, 원로 영화인 생애와 한국영화의 현장을 젠더문화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작업이 한국영화 구술사를 보다 더 풍부하게 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한다.

글쓴이 **심혜경** 중앙대학교 영화학과 박사과정을 수료하였다. 2005년부터 한국영상자료원 영화사연구소 원로 영화인 구술사 팀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